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

이름: 신준규

학번: 20235109

상담 일자: 9/19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답변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저녁 시간에 심심한데 할 일이 없다.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재미없다 느껴진다.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1.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한 개만 가지고 싶었다	모르는 사람의 옆모습……
오지 않은 미래가 달아나는 소리에 왼쪽 눈만 뜨고 세수를 했다	깜깜한 오른쪽 눈 속에서는 얼음산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지만,	빛을 받아내지 못하는 몸으로 준비를 끝낸 척해보았다 바람의 말을 알아듣는 척해보았다
돌맹이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 나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옆집은 밤중에만 문을 박고 세탁기를 흔들어 깨운다	아직 살아 있다 믿으며 철없이 반짝이는 별들에게 너는 이미 죽었어, 속삭여주었다
과탈게 진열되어 있는 언니와 형들 하루 종일, 어디가 간지러운 줄도 모르고 이 등 저 등을 두드려보았다	벽에 귀를 대보면 조용해지는 혼자 사는 사람이 흘리는 물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의 숨소리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 칼자루는 은밀하게 녹슬고
문 밖에 버려진 발톱처럼 굵고 또 굵으면 벗겨지는 이름이 있었다	옥상에 올라가 손그림자를 만들어보았다	어둠을 기대하면 어둠이 시시해지고 먼저 사랑하는 쪽이 먼저 무사하며
죽은 듯이 잠들었는지 잠든 듯이 죽었는지 모르는 얼굴을	토끼와 독수리 코끼리와 달팽이	웃지 않는 거울을 기다리거나 서로 똑같은 크기의 명을 문지를 때에도

해석

- 1 연 :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 왼쪽 눈만 뜨고 세수를 했다는 내용은 세수를 하며 아침을 맞았으며,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의미.
- 2 연 :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 3 연 : 불완전한 자신과 달리 온전히 진열되어 있는 다른 형제를 표현.
- 4 연 : 어디가 간지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 지금의 심리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온 고통인지 모르겠다는 의미
- 5~7 연 : 죽음에 대한 암시. 고통으로부터의 회피를 원함.
- 8 연 : 오른쪽눈에서 얼음산이 무너진다는 것이 희망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
- 9~10 연 : 주변의 여러 관심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 외로운 나의 슬픔에 대한 헤아림에 대한 표현.
- 11~12 연 : 투신 자살에 대한 암시
- 12~13 연 : 그림자 놀이로 여러 요소를 만들어보나, 결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음을 암시.
- 14,15 연 : 아직 밖의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스쳐지나가는 여러 사람들(바람)의 말을 이해하는 척, 평범한 척 행동.
- 16 연 :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함. 칼이 녹슨다는 것은 방어적 표현이라고 생각.
- 17~19 연 : 일상의 지루함과 고통을 표현.
- 20,~21 연 : 고통으로부터의 탈피(아마 자살시도)와 욕망을 의미.
- 22~23 연 :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오른쪽눈(긍정적인 모습)에 기다리던 무언가가 옴.
- 24 연 : 그림자는 내가 부정하는 나의 모습. 왼쪽을 의미
- 25 연 : 너 = "기다리던 햇빛". 부모, 연인 등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나로써 있을 수 있음. 두 개 = 온전한 나

선정이유

지루함의 원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22 연의 지루해진 세계를 벗고 질주해서 내리고 싶다는 내용이,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준규의 고민과 겹쳐 보여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언급되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각각 세상의 부정적, 긍정적인 관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내용에 따르면 세상을 왼쪽눈으로만 바라보던, 화자는 마지막에서야 태양과 같은 누군가의 앞에서 오른쪽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눈에 세상이 지루하게 비춰지는 준규에게, 언젠가 오른쪽 눈에 희망과 즐거움이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추천합니다.

2. 네온 웨하스

네온 웨하스

분홍 파랑 초록이라고 쓴다 깨끗하고 네모난 도시에
서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 깨끗하고 네모난 기분을 느끼
러 갔어 배가 고플 때마다 갔어 옆 테이블 사람들과 같은
언어로 같은 메뉴를 주문하지만 먼 나라에 와 있는 것 같
고 없는 일행을 찾으러 가야 할 것 같고 없는 내가 벌떡
일어나 땀뻘 목소리로 웃지 마! 소리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체할 것 같을 때 벌써 누가 문을 박차며 달아나고
있었고 체할 수 있을 때 체하지 못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
었고

걷는 소리

구르는 소리

나를 가로질러 가는 구름 한 점 없었어 컵에 담긴 물에
서는 잊어버린 숲냄새가 났지 이곳에서는 아무도 쓰레기
를 버리지 않거든 그래서 주울 일도 없다 그래 봤자 허리
를 굽히는 사람은 모두 이곳을 떠났지만…… 광장 위를
분주히 걸어가는 저 발들은 마음속에서 자라는 검정을

모두 어디에 숨겼을까

부르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쓴다 도시의 소음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같아 저기 봐, 커다란 바퀴가 사람을 끌
고 다니고 있잖아 햇빛 아래 있으면 더러운 게 너무 잘
보이니까 빌딩과 아파트가 조금씩 모래로 변하고 구름
이 강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나무들은 발바닥처럼 쪼그
라들었는데…… 사람들은 왜 벌레가 나오지 않는 집에
살면서도 자꾸만 뛰어내릴까? 창문을 열면 창문이 있고
창문을 닫으면 창문이 있는 곳으로 쓰레기차가 들어오고
있네

해석

1 연 일상의 무료함을 화자가 서술하며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생각함.

4 연 예전의 새로움을 '잊어버린 숲냄새'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새로움을 더이상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

마지막 연 첫연에 일상적으로 표현했던 도시의 모습을 난해하게 표현한 것을 통해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선정이유

시인이 일상적인 도시를 표현한 곳에서 일상에 싫증난 준규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처음 일상적으로 그냥 서술했던 도시의 모습을 굉장히 난해하게 표현한 것을 일상을 어떻게든 새롭게 느껴보려는 시각이라고 생각해 준규 씨에게도 이러한 시각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 추천하게 되었다.